

##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유인책 부족... "특례 확대를"

전국 사업체 49% 수도권에 집중  
광주·전남 기업 전국 점유율 6.7%  
정부,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 
과밀억제권역 기업만 적용 '한계'

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 
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 화두로  
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기업들의  
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과 세  
제 지원 등에 나서고 있으나 실제 혜택을  
받는 사례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'과밀억제권역'  
에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만 관련 지원법  
이 적용되고 있어 '성장관리권역'이나 '자  
연보전권역'에도 특례를 적용해 기업들의  
지방 이전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  
적이다.

19일 통계청의 '2023년 전국사업체조  
사'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623  
만8580개 중 48.98%인 305만4523개가  
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에 연고를 두고  
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에 따라 전국 사업체 종사자 총 2532  
만1526명 중 41.97%에 달하는 1316만  
1663명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  
사됐다.

반면 광주·전남지역 사업체의 전국 점  
유율은 6.7%로 한자리 수에 머물고 있는  
것으로 집계됐다.

기업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 
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일자리 창출,  
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방소멸 위  
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 
수도권 기업들에게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 
을 지원하고 있다. 관련법에 따라 기업의

입지·설비 투자 등에 대해 투자지역별·기  
업 규모별로 투자액의 일정 금액을 지원  
한다.

입지보조금의 경우 투자사업장의 토지  
매입가액 5~50%를 지원하고 있으며, 설  
비보조금의 경우에는 투자사업장의 건설  
·기계장비 구입비의 4~25% 가량을 지원  
한다.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세제  
혜택도 주고 있다.

하지만 최근 5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지  
방으로 본사와 공장 등을 완전 이전한 기  
업은 19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. 대  
다수 기업들이 완전 이전이 아닌 지방에  
공장을 신설하거나, 증설을 통해 지방투  
자촉진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  
타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  
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.

특히 산자부의 보조금 지원 대상이 수

도권에서도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들  
만 해당돼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  
역에 위치한 수도권 기업들을 외면하고  
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.

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수도권에서 1  
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을 대상으로  
하고 있으며,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  
업들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조세  
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세제 혜택도 과밀억  
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에만 적  
용된다.

실제로 경기도에 위치한 A업체는 광주  
로 이전을 추진 중이지만 지방투자촉진  
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.

이 기업은 광주에 본사와 공장을 완전  
이전해 대규모 투자는 물론 지역내 고용  
창출과 주변 협력업체 등과의 공급망 개  
선도 본격화할 계획이지만 기존 사업장이

있는 지역이 '성장관리권역'에 포함돼 보  
조금과 세제 혜택 등 국비 지원을 받을 수  
없는 실정이다.

A업체 관계자는 "수도권 지역의 기업  
들 입장에서 지방 이전은 보조금 및 세제  
혜택 없이는 어려운 선택일 수밖에 없다"  
며 "정부 보조금을 통해 입지·설비 지원을  
받아도 현지 시설 투자나 인력 확충 등에  
부담이 되는 게 사실"이라고 말했다.

이 관계자는 이어 "지역경제 활성화와  
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 관련 규제  
를 완화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  
다"며 "과밀억제권역의 수도권 기업들도  
지방으로 이전해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  
도록 정부가 선도지구, 기회발전특구 등  
과 같은 특례조항을 확대해 지방시대 구  
축에 힘을 보탬으면 한다"고 덧붙였다.

박소영 기자 soyeong.park@jnilbo.com

## 광주 GCC사관학교, 첫 문화콘텐츠 인력 배출

실감콘텐츠큐브

제1기 132명 수료... 취업 등 성과  
이론·실무교육 '실무형 인재' 양성

광주실감콘텐츠큐브(GCC) 사관학교가  
문화콘텐츠 분야의 첫 인력을 배출했다.

광주시는 19일 GCC VX스튜디오에서  
'GCC사관학교 제1기 수료식'을 개최했  
다.

GCC사관학교는 광주시가 문화콘텐츠  
분야 뿌리에서부터 전문가까지 탄탄한 인  
재양성 사다리를 완성하기 위한 인재양성  
사업으로, 게임·애니메이션·웹툰·실감콘  
텐츠 등 콘텐츠 분야 기업현장에 바로 투  
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 
설립됐다.

올해 1월 첫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,  
391명이 지원해 2.6:1의 경쟁률을 보였  
다. 제1기 교육생은 총 173명이 입교해  
기본과정, 중고급과정, 메이커톤, 팀프로  
젝트 등 8개월 간 약 1200시간의 체계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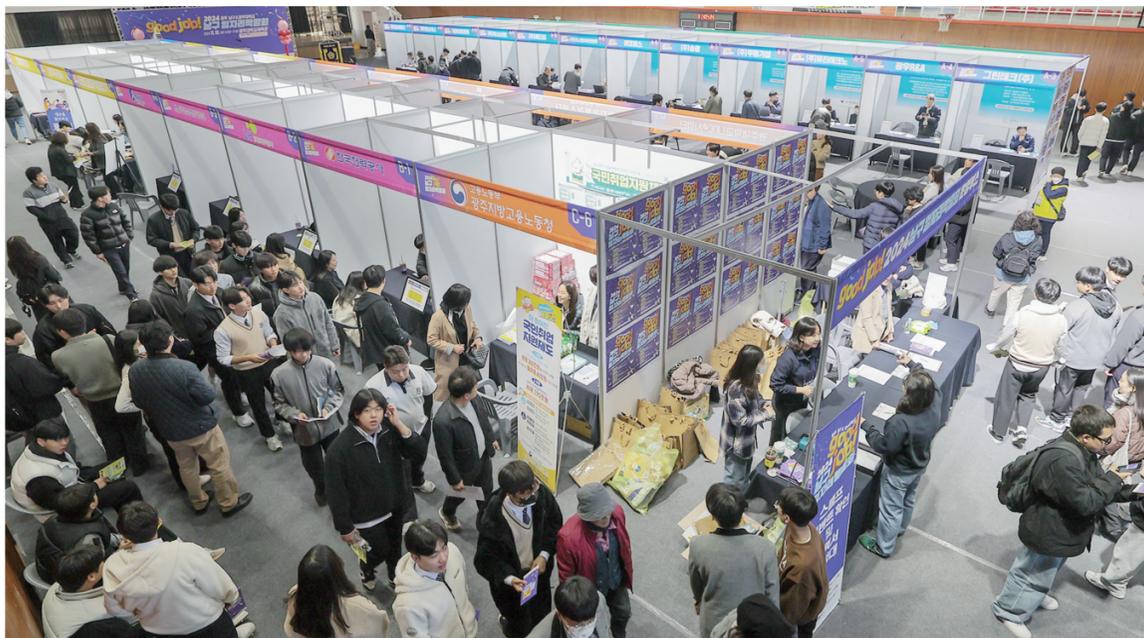
교육과정을 거쳐 이 중 132명이 수료했  
다.

1기 교육생 중 19명은 취업에 성공, 실  
무 현장에서 뛰고 있다. 88명은 10월부터  
8주간 26개 사의 기업프로젝트(인턴십)  
에 참여 중이다. 광주시는 수료 후에도 교  
육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맞  
춤형 컨설팅을 통해 실무현장에 취업할  
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.

특히 이론교육뿐 아니라 기업과 학생들  
이 협력한 460시간의 팀프로젝트 등 실습  
이 결집된 GCC사관학교만의 인재양성  
교육프로그램이 실무형 인재를 만드는데  
큰 효과를 발휘했다.

강기정 시장은 "다양한 프로젝트와 실  
무 경험을 통해 준비된 문화콘텐츠 인재  
인 GCC사관학교 학생들의 무궁무진한  
성장을 응원한다"며 "광주가 대한민국의  
AI×문화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데 앞장  
서 달라"고 말했다.

노병하기자



2024 남구 일자리 박람회

대학생, 청년, 여성 등 광주지역 구직자들이 19일 광주대 체육관에서 열린 '2024 남구 일자리 박람회'에서 공기업, 대기업, 서비스업 등 1:1 취업 상담과 구인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. 광주 남구청과 광주대 LINC3.0사업단, 광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주최한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현장 인력 채용 및 온라인 채용관, 적성검사 프로그램 등이 운영됐다.

대학생, 청년, 여성 등 광주지역 구직자들이 19일 광주대 체육관에서 열린 '2024 남구 일자리 박람회'에서 공기업, 대기업, 서비스업 등 1:1 취업 상담과 구인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. 광주 남구청과 광주대 LINC3.0사업단, 광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주최한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현장 인력 채용 및 온라인 채용관, 적성검사 프로그램 등이 운영됐다.

나건호기자

## 상·하수도 비굴착

• 국내 최초 상·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 
『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.S.L공법』

•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 
『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.P.L공법』

### 굴착교체의 문제점

하수관 보수 공사에 일반적으로 굴착 후  
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,  
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 
안전사고 위험도 크다



###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

• 굴착을 수반하는  
하수관 보수공사에  
비해 공사비 저렴  
• 투입인원! 인건비 절감

• 하수관 내에 형성된  
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 
향후 50년으로 전망

•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 
안전사고 감소  
• 타매설관과 접촉으로  
인한 위험성 해소

“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(유)탐환경건설·(주)탐앤제이”

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 
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.